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시, 별헤는밤 등 시대의 등불처럼 어둠을 밝힌 19편의 시가 살아 숨 쉬는 정병욱 가옥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운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운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재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운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운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재본했다.

그중 한 부는 운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상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운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곤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상하 교수의 만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토록 소망했던 시집 출간은 좌절되고 운동주는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광복을 6개월여 앞둔 1945년 2월 차디찬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치안보고록'에 따르면 운동주는 1943년 7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돼 같은 해 12월 6일 미결수 교도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1944년 3월 31일,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듬해 1945년 2월 16일 순국했다.

한편, 정병욱은 학병으로 끌려가던 서도 운동주에게 받은 시집을 어머니께 맡기며 소중히 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동주와 이상하 교수의 시고는 행방을 잃었지만, 정병욱과 그의 가족이 가옥 마루 아래 항아리에 숨겨 지켜낸 시고는 1948년 1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출간돼 무명의 운동주를 마침내 시인으로 부활시켰다.

정병욱은 회고록 '잊지 못할 운동주 형'에서 "내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운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린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의 나에게 문학을 이해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된 뜻을 아는 어떤 면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운동주가 심어준 씨앗'이라며 운동주의 시 '흰 그림자'를 뜻하는 백영(白影)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광양 망덕포구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유산 341호)'에는 명주보자기에 곁게 싼 유고를 항아리에 담아 마루바닥 아래 숨겨둔 당시 상황이 재현돼 있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운동주 시 정원'에는 서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자화상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춘 등불 같은 시들이 돌에 깊이 आरो새겨져 있다.

또한,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해상보도교 '별헤는다리'를 비롯

해동주카페, 별헤는강 등 운동주 시인과 그의 시를 모티브로 한 공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운동주는 생전에 그토록 원하던 시집을 출간하지 못하고, 독립운동 혐의로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적국의 차디찬 형무소에서 순국했지만 운동주와 그의 시를 알아본 후배 정병욱의 우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시인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80주년 광복절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운동주의 순수한 시 정신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묶은 친필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역사적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광양여행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재)담양군문화재단, '어쿠스틱 인 해동' 3회차 공연 개최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는 사계절의 노래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은 오는 23일 오후 5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에서 2025년 '어쿠스틱 인 해동' 3회차 공연을 연다.

'어쿠스틱 인 해동'은 2024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 거점공간 활성화 공연 프로그램으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을 무대로 지역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문화 거점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무대에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 'Ensemble EL'이 오른다. 테너 석승권과 소프라노 오해은을 중심으로 클래식 성악의 매력을 전하며, 2025 해럴드경제 주관 '클래식 음악'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단체다.

공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또 다시'를 주제로 한국의 사계절을 노래한다. 이탈리아 가곡 (Aprile)로 시작해 김효근의 (마중), (첫사랑) 등 국내외 다양한 언어의 곡을 오롯이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료는 1만 원이며, 담양군민과 일부 대상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담양' 또는 '어쿠스틱 인 해동'을 검색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사라져 가는 한국의 사계절을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라며 "어쿠스틱 인 해동은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담양의 대표 공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소통왕 말자할매 SHOW' 무더위 날린다!

장흥군, '8월 14일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군은 오는 8월 14일(목)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2025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통왕 말자할매'는 KBS 공개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웃음과 감동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스탠드업 코미디이다.

특히 말자할매 역의 개그우먼 김영희의 뛰어난 순발력은 관객들의 고민까지 공감하며 웃음으로 승화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자신만의 개성과 유머로 관객들을 웃음 속으로 이끄는 개그맨 정병균도 함께 해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 (☎ 061-860-5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더운 여름, 말자할매의 시원한 고민 상담을 들으며 무더위를 날려 보내길 기대한다" 또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제2회 장흥미술품 전시회도 둘러보고 문화공연도 관람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극단청자 '파릇한 그릇에 담긴' 뮤지컬 공연

8월 19일 오후 2시,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연

극단청자(대표 임재필)가 '2025년 전남 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퍼토리 공연'으로 창작 뮤지컬 '파릇한 그릇에 담긴'을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강진아트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여 명의 전문 뮤지컬 배우, 무용단, 연주팀이 함께 참여해 고품격 정통 창작 뮤지컬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고려 중기, 강진군 대구면을 배경으로 청자의 예술혼, 민족적 정체성, 사랑과 희생, 권력과 충절의 이야기를 담아낸 본격 역사 뮤지컬이다. 특히 주인공 '소낭자'와 '김선비'의 애절한 서사와,

고려 비색청자의 탄생과 예술적 진화를 통해 지역 문화의 깊이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임재필 작가(극단 청자 대표)는 "도공의 혼이 담긴 고려청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며, "특히 청자를 매개로 한 이념, 예술, 신분, 사랑의 충돌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담아낸 작품이다. 관객들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뮤지컬은 청자 제작의 전 공정을 무용과 합창, 연극적 장치로 재현하고 있으며, 도자기에 백학의 문양을 새기는 '상



감 기법'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술과 예술, 신념의 충돌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이번 작품은 강진 출신 작곡가 고아람 감독을 중심으로 전남·광주의 청년 예술인들과 강진 지역 배우들이 공동 제작하였으며, '극단 청자'가 추구하는 지역 창작

콘텐츠의 글로벌화, 예술의 자립성, 로컬 아카이빙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뮤지컬의 관람료는 1만 원이며, 예매는 061-433-1101 또는 010-3544-3328으로 가능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디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